

매 화 향 기 그 옥 한 조 계 산 선 암 사

仙巖寺

통권5호 불기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5



선암사의 선지식



호암 약휴 (護巖 若休 1664 - 1738)

호암약휴(護巖若休, 1664~1738) 스님은 전남 순천의 쌍암면 죽림동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으로 거의 모든 전각이 무너져버려 폐허가 된 선암사를 지금의 선암사로 재건하였다. 1675년 열두살때 선암사 경준(敬俊) 스님에게 출가한 뒤 침광현변(枕宏懸辯) 스님에게 계를 받고 사미가 되었다. 1698년 서른다섯 살에 선암사 주지를 맡으면서 선암사의 중창을 목표로 하여 정유재란 이후 쇠락한 선암사에 원통각을 짓고 관음보살을 봉안하였으며 불조전을 짓고 53불을 조성하였고 보물 제400호인 승선교를 세우는 등 4차 중창불사를 통하여 법당 8동, 전각 12동, 승방 16동, 암자 15개소, 대중 350여명의 대가람을 이룩한 선암사의 중창공덕주이다.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 5호 2015년 04월 27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호암 약휴	2
주지스님 법문	Now and here, awakened life	4
조계산 편지	백척간두진일보 - 진실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6
선암사의 정보	보물 제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8
이달의 풍경	깨침	10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4) - 유성출가(踰城出家)	12
신도탐방	법우 진민혁 불자	14
선암사 소식	4월 행사 및 5월 예정행사	16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18
선암사 안내	선암사 성지순례, 月刊 仙巖寺 정기구독	19



사진 진 우

표지설명 : 님 오신날
만 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오신날
선암사에도 불축등이 가득하다.

발행일 2015년 04월 27일
발행인 법원(法願)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집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현광 허수길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HTTP://www.선암사.org

Now and Here, awakened life!

- 지금 여기, 늘 깨어있는 삶 -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오늘은 불자님들이 가치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만한 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Now and here, awakened life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의 많은 후회들과 다가올 불안한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극복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Now and Here'과 'Awakened life'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의 계송과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불자들이 찾아와서 당시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이유와 함께 미래를 가르쳐 달라고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Now and Here'에 해당하는 아래의 계송을 설하셨습니다.

- 欲知前生事** (욕지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 今生受者是** (금생수자시)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라.
- 欲知來生事** (욕지내생사)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 今生作者是** (금생작자시)
현재 하는 일이 그것이라.

부처님께서서는 충실한 현재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기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懷州牛喫草
 益州馬腹脹
 天下覓醫人
 灸豬左膊上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지금 여기 매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사가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중생들의 전생과 내생에 대한 궁금증을 부처님께는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큰 스님들의 계송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懷州牛喫草** (회주우깅초)
회주에 있는 소가 풀을 뜯더니
- 益州馬腹脹** (익주마복창)
익주에 있는 말이 배탈이 나네
- 天下覓醫人** (천하맥의인)
천하에 이름난 의원을 찾았더니
- 灸豬左膊上** (구저좌박상)
돼지 왼쪽 허벅지에 뜬 뜬네

중국에 두순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두순스님의 은사스님께서 제자에게 공부 얼마나 됐는지 보려고 오월절구로 계송을 하고 답송을 합니다.

이 두 스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기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아(無我), 무상(無相), 공(空), 연기(緣起) 등, 이런 이치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의 중심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9년 4월 법회 법문에서... ㊦

百尺竿頭進一步

진실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암사 주지 법 원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입니다.

어느 틈엔가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온 듯 하더니 벌써 오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선암사의 월보인 『月刊 仙巖寺』가 통권 5호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제가 이렇게 지면으로 불자님들과 대면하는 것도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도 기본교육도 강의를 마치고 오는 5월 9일에 수계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간 선암사를 방문하신 우리 종단의 많은 사찰과 신행단체들도 우리 중무소를 찾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암사의 정상화를 염원하시는 불자님들의 응원덕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차 체험관 철거소송은 지난 4월 22일 선고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회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태고종 선암사 측에서 제기한 등기무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선고를 유예하고 회해 권고를 하였으나 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속한 선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태고종 선암사측에서 제기한 등기무효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종단 내 TFT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6대 중앙총회에는 ‘선암사 정상화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특위의 첫 회의가 소집되어 향후 특위 활동과 등기무효소송에 대한 대응, 태고종 선암사측 협상안에 대한 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 하였습니다.

특히 태고종 선암사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재산임을 재차 확인하고 선암사 문제를 사찰 재산 분할 형태로 하는 협상이나 협의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종단측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 팽목항에서 수많은 리본들을 보며 끌어올려 밝히지 않으면 묻혀버리는 진실의 한(恨)과 우리 선암사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40여 년 전, 분규로 인하여 국가에서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고 양 종단간의 분규 종식까지 당시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면서 소유주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점유자의 거주가 유지되면서 마치 그 표면적인 모습들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어버린 선암사의 현대사... 그 묻혀버린 진실...

저는 그 묻혀버린 진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종도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이 수승한 불사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

인생사 삼라만상을 돌아보며...

- 보물 제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



보물 제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부분
인로왕보살(左), 지장보살 및 관세음보살(右)

선암사 감로왕도는 1736년 의겸(義謙)이 으뜸화원을 맡아 그린 작품으로 화기에 “서부도전하단도(西浮圖殿下壇圖)”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부도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단에는 칠여래와 관음,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중단에는 한 쌍의 아귀와 제단, 하단에는 육도 제상을 그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감로왕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상단에 그려진 칠여래가 중단과 하단에 비해 비중 있게 그려진 점인데, 이는 수륙재(水陸齋)를 통하여 중생들을 영가천도(靈駕遷度)하는 감로도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물 제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보물 제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부분

황색 바탕위에 녹색과 적색을 주조로 한 차분한 색조와 안정된 필치,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육도제상의 장면은 화승 의겸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판단된다. ☺



悟道頌

海底燕巢鹿抱卵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火中蛛室魚煎茶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달이네
此家消息誰能識 이 집 소식 누가 알꼬?
白雲西飛月東走 흰 구름 서로 날고 달은 동으로 달리네

曉峰大宗師(1888~1966, 통합종단 초대 종정)

부처님의 생애(4)

유성출가(踰城出家)

- 생사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즐거하시다 -

편집실



유성출가상

중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작

마지막 문에서 만난 수행자의 그 평온한 모습과 모든 고뇌에서 해탈한 듯한 모습에 태자의 인생관은 점차 변모되었고, 마침내 부왕에게 출가하여 수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정반왕은 태자의 출가의지를 직접 듣고 크게 놀라 여러 방법으로 설득해 보

았지만 태자의 철석같은 결심은 추호의 변동이 없었다.

결국 부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이을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같은 석가족인 이웃나라 콜리성의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태자 싯달타는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다.

그 후 궁중에 태자를 위한 연회가 크게 베풀어지던 어느 날, 태자는 태자를 위하는 여러 사람을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즐겁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서는 웃는 낯으로 즐거운 듯 함께 어울렸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틈에 마부 찬다카를 깨워 애마 칸타카를 타고 카필라의 성벽을 뛰어넘어 동쪽을 향하여 어둠을 뚫고 달렸다. 성을 나온 태자는 성을 바라보며 사자처럼 외쳤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오분율〉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산중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가식된 삶을 버리고 진정한 세상 속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출가는 실로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

왕궁이 멀어지자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내고 값비싼 옷을 벗어 사냥꾼의 낡은 옷과 바꾸어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이 날이 태자 나이가 29세 되던 해 음력 2월 8일로 이날이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재일이다.

싯달타 태자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심한 끝에 이 출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병든의 고통이 없고, 늙음의 고통이 없고, 온갖 구속과 장애에서 벗어나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출가한 것이다. 이때부터 싯달타 태자는 수행자 고타마라고 불렸다.

수행자 고타마는 당시의 유명한 수도자들을 찾아 인도 남쪽의 마가다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훌륭한 종교가들이 온 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알라라 칼라마의 문하에서 그가 가르치는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이라는 수행을 배웠는데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해 버렸다.

다시 그는 다른 스승인 웃다카 라마뫼타에게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는 선정을 배웠지만 그 경지 역시 곧 도달해 버렸다.

수행자 고타마는 스승에게서 배운 선정을 통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 곁을 떠나 독자적인 수행을 시작하였다. ☺

복 짓는 마음, 공덕 쌓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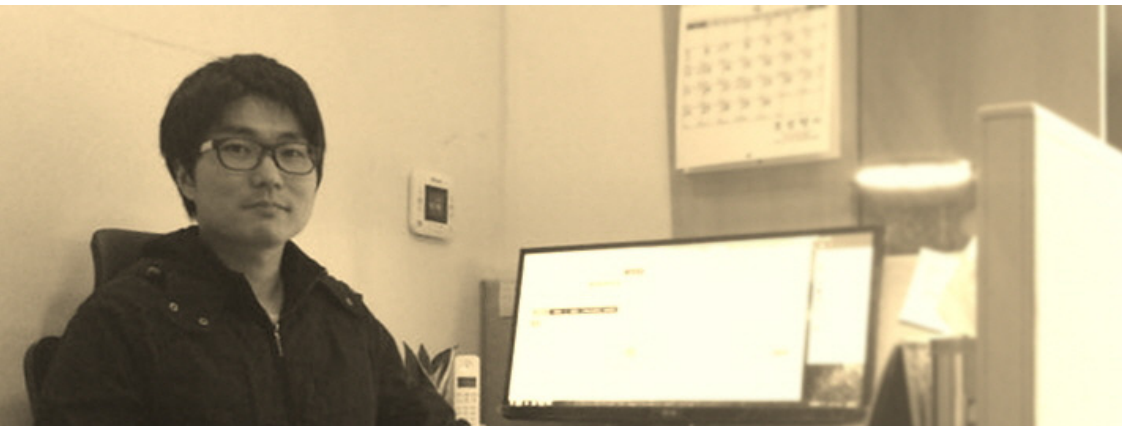
범우 진민혁 불자

편집실

그러나 세속에서 세인들과 연을 맺고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며 비불자들을 불교와 새로운 연을 맺게 하는 불교일은 많다. 그 중 하나가 불자들과 부처님의 성지를 연결시켜주는 전문 여행사이다.

진민혁 불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보고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냈다.

창원이 고향인 그는 불교와 인연이 많다. 학창시절 서울에서 스님들과 생활



젊은 불자 한명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의외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진성 청년 불자들이 많다.

서울 강남, 그것도 '뱅뱅사거리'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지 중의 요지에 작지만 큰일을 펼치는 불자가 있다.

불교일이라면 보통은 재가종무원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종단이나 사찰 내에 국한되기가 쉽고 폭도 제한적이다.

하며 많은 경험을 하였고 작년에는 모사찰에서 잠시 사찰과 스님들 일을 거들기도 하였으며 속가 형님이 출가하신 스님인지라 불교와의 인연은 태생적이고 운명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지난 2013년부터 약 6개월간 네팔과 부탄을 두루 다니며 현지 사정을 익히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이 사찰이나 불자들과 연결시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불교? 그저 열심히 살 뿐!

최근 네팔 대지진의 엄청난 인명피해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성스러운 부처님의 성지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네팔 지진피해의 빠른 구호와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여행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요즘 같은 시절에 경쟁이 치열한 여행사, 그것도 불교성지순례와 트래킹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의 창업은 너무 좁은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 섞인 격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진출하는 시장이 분명히 Red Ocean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 여행사들도 다수 있고.....

그러나 제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법답게 살고자 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이윤 없는 봉사가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이 이윤 창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분명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풍부한 경험과 안목, 전문적인 능력, 특화된 인연고리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저도 약 6개월간에 걸쳐 현지에서 생활하면 차근차근 준비를 했구요.

불자님들과 부처님의 성지를 연결시켜주는 일, 바로 복 짓는 마음으로 공덕 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 다시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팀이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조금씩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는지 사찰과 스님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삶,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더 붙어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이 불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를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 잘 새기고 열심히 사는 것.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좀 더 연륜과 경험이 쌓이고 공부 깊어지면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열심히 살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저 열심히 사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꿈을 위해 큰 한발을 내딛은 범우 진민혁 불자의 큰 용기에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어지러운 시절, 많은 사람들이 법다운 삶을 이야기 하면서도 법답게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민혁 불자의 그저 열심히 사는 삶이 좋은 귀감이 되어 범법처럼 법의 비가 내리는 환희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범우(法雨) 진민혁

코어트레블 실장



- 4월 소식 -

01.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점검

지난 4월 7일 보물 제1506호 선암사 선각국사 도선진영 및 보물 제1554호 선암사 33조사도를 보존처리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소재 한영문화재를 방문하여 보존처리 및 모사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02.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2기 교육 종료

지난 3월 일 입제한 신도기본교육 제 2기가 지난 4월 18일 강의를 끝으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5월 9일 봉행하는 수계법회에서 더 큰 불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03. 진도 팽목항 방문

지난 4월 19일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진도 팽목항에 주지스님과 총무스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종자 및 인양문제 등 원만한 사고수습을 발원하였습니다.



04.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소심 화해권고결정

지난 4월 22일 선고예정이었던 선암사 경내 순천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과 관련하여서 재판부(재판장 최영남 판사)에서는 지난 4월 21일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선암사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05. 중앙중회 선암사 정상화 특위 개최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관에서 선암사 정상화 특위(위원장 만당스님)가 개최되었습니다. 특위에서는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속 사찰이며 소유임을 재차 확인하고 원만한 정상화 추진에 매진하기로 하였습니다.



06. 성지순례 선암사 방문

지난 4월에도 서울 길상사, 울산 월봉사, 통도사 자비원, 대구교사불자회 등 여러 지역의 사찰 및 신행단체에서 선암사로 성지순례를 오셔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불자들의 격려와 응원이 선암사 정상화의 초석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5월 예정일정 안내 -

01. 호남 6본사 협회의 참석 예정

오는 5월 4일(월) 광주에서 호남6본사 협의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호남 6대 본사와 선암사의 주지스님 및 총무실장들이 결집하여 무차법회, 봉축 행사 등 5월의 지역 사회 및 종단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협의 및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02. 신도기본교육 수료 및 수계 법회 예정

오는 5월 9일(토) 6주간 진행되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제2기 신도기본교육이 끝이 납니다. 이 날은 교육 수료식과 함께 행도품계 품서식 및 정기법회가 진행 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3.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참석 예정

오는 5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광복79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서 신도님들을 모시고 동참할 예정입니다. 동참을 하시고자 하는 신도님들께서는 총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불기 2559년 제9회 순천 등축제 봉행 및 참석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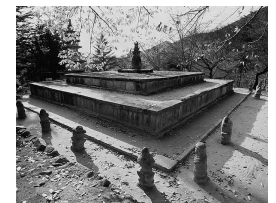
오는 5월 16 ~ 17일 이틀간에 걸쳐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부처님오신 날 기념 순천 등축제가 봉행됩니다. 선암사에서도 지역 불자님들과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며 17일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불기 2559년 5월 수계법회 안내

오는 5월 09일 토요일에는 신도기본교육을 마치신 신도님들이 5계를 수지하는 수계법회로 봉행됩니다.
기존에 수계하신 신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새 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5월 수계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5월 0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선암사 차 체험관 강당
대 상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이수자 및 누구나
동참금 1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정재용 신도 순천 흥륜사 극락전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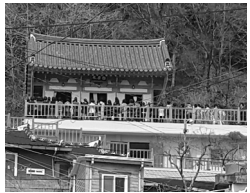
지난 4월 4일 흥륜사에서 문화재 보수업을 하는 정재용 신도가 추진하였던 극락전 개축공사의 원만회향을 기념하는 낙성식이 화엄사 주지스님, 선암사 주지스님, 흥륜사 주지스님 외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02. 진민혁 신도 성지순례 전문 관광회사 '코어트래블' 창업

지난 4월 진민혁 신도가 서울 강남에 해외 성지순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인 '코어트래블'을 창업하였습니다. 인도, 네팔 등 불자님들과 부처님의 성지를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시켜주며 공덕을 짓겠다는 목표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많은 불자님들과의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3. 정재용 신도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거림종합건설' 개업

문화재 보수업을 하는 정재용 신도가 새롭게 회사를 준비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림종합건설은 본사를 전남 화순에 두고 순천에 사업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1



02



03

네팔 지진피해 후원금 모금

지난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강진으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긴급재난 구호봉사대가 선발대를 4월 27일 파견하였고 이어 본대가 파견되어 카트만두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빠른 구조와 복구를 기원하며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후원문자 : #25405101 번호로 응원문자 1통당 3천원이 후원됩니다.
- ARS 전화후원 : 1666-5401 원하시는 금액만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초파일 연등접수 안내 -

천년고찰 조계산 선암사에서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초파일 연등을 접수합니다.
천년고찰 선암사 부처님 전에 연등공양을 올리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 접수계좌 : 농협 301-0128-6618-31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 전화 : 061-725-5108
 계좌 농협 301-0128-6618-3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구독료 3만원/1년



천년의 숨결 순천불교
거리에서 다시 만나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불기 2559년 제9회

순천 등축제

2015. 5. 16(토) ~ 17(일) 2일간
순천시 향동 문화의거리 일원

제6회 연꽃문화제

등(Lantern) 콘테스트

| 일정 |

- 접수: 2015. 05. 01(금) ~ 5. 10(일) 18시 한
- 전시: 2015. 05. 16(토) ~ 05. 17(일)
- 시상: 2015. 05. 17(일) 법요식 직후 (참석자한)

주최 순천시 불교사암연합회

주관 제9회 순천 등축제 추진위원회 (문의: 744-7773)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순천시 |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  순천시의회 | 송광사 | 화엄사 | 선암사 외

불교문화예술제

- 풍경음악회: 5. 16(토)~17(일)
- 법요식 및 등향연: 5. 17(일) 19:00~20:00

전시 및 체험

- 등전시: 5. 16(토) ~ 17(일)
- 문화체험 & 프리마켓: 5. 16(토) ~17(일)
- 로컬푸드: 5. 16(토) ~17(일)